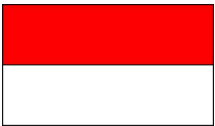




스물세번째 이야기

주님의 Healing

[빛진 자③ 인도네시아 아웃리치-부산BEE]



‘주님... 이번 아웃리치는 마음과 육신이 힐링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인도네시아 아웃리치를 가기 전의 나의 기도 제목이었다.

8월 12일~19일간의 인도네시아 아웃리치는 무엇보다도 봉해남 선교사님의 사역지인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지역에서의 세미나 참관을 통해 현지 BEE 사역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하는 것과 선교사님, 현지 BEE 인도자와 학생들과의 교제를 통해 우리의 중보기도를 구체화하여 더욱 깊이 기도하며, 또한 그들을 위로하며 격려하고 더불어 인도네시아의 문화와 특별히 수라바야 지역 교회를 이해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내심 수라바야 일정 이후 발리에서의 2박 3일 일정을 더 기대하며 아주 오랜만의 휴식(?)을 꿈꾸며 일정에 올랐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만의 이런 꿈을 첫날부터 여지없이 무너뜨리셨다.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 저가 항공을 이용한 우리는 경유지인 베트남에서 하룻밤을, 다음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현지 국내 항공을 이용해서 수라바야로 가야만 했다. 일단 비행기는 원 없이 탄 것 같다.



12일에 출발하여 14일 첫 방문지인 GBI GREJA SDC(살롬제자 교회)에서 인도네시아 CGNTV에서 간증 영상을 제작할 정도로 유명(?)한 화교 출신의 에스더 목사님과 그분의 아드님인 담임 목사 데이비드 목사님을 뵈었다. 위로와 격려를 해주려고 간 교회에서 오히려 우리가 몸 둘 바를 모를 정도로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꽤 어둑한 늦은 시간까지 교회 성도님들과 자유 교제의 시간을 가지는 내내 끊임없는 놀라운 간증들을 들으며 그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뵈었다.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정과 열심은 함께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였다.

다음날 예전에 사창이었으나 지금은 상가와 교회가 있는 지역의 GBI GREJA Kristus Penyelamat (그리스도 구세주 교회)와 GBI GREJA Kristus Penebus(그리스도 대속자 교회)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 세미나를 참관하였다. 너무나 열악하고 좁은 공간에서 각각 8명과 3명의 학생들이 바쁜 삶을 뒤로 하고 세미나에 참여하는 그들의 모습 위로 주님의 흐뭇하신 미소가 흘러내림을 느꼈다. 내가 15년 전 처음 BEE 세미나에 참여했을 때 주님이 내게 보여주셨던 그 미소였다.



그 외 현재 출석 교인이 약 1,300여 명이 되는 갯자와 교단의 GREJA KRISTRN JAWI WETAN (서쪽 JAWI 크리스천 교회), 2019년 무슬림 자동차 폭발 테러로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73년 된 오순절 교회인 GREJA PANTECOSTA PUSAT SURAVAYA JEMMAT SAWAHAN를 방문해 인도네시아의 교회와 문화를 부분적으로나마 이해하게 되었다.

드디어 일정의 마지막을 장식해줄 발리로 향하였다. 신약시대 열두 제자가 주님과 동행하며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흐리멍덩하였듯이 나 역시 발리의 달콤한 휴식을 꿈꾸며 수라바야에서의 주님과의 만남을 슬그머니 뒤로하고 있었다. 그런데 신혼여행지 1순위, 여름휴가지 1순위인 발리 오랜만에 달콤한 휴식을 꿈꾸며 온 그곳에서 주님은 나의 신앙과 믿음을 여지없이 심판하시는 장소로 계획을 하고 계셨다.

무슬림이 약 90%인 인도네시아에서도 발리만 유일하게 힌두교가 80%이다. 우리가 이단이라고 칭하는 그들이 잘못된 신앙으로 사는 곳이다. 발리에서 주님이 나에게 제일 처음 눈에 들어오게 한 광경은 거리의 집마다 대문 양쪽으로 서 있는 대나무 장대 펜조르였다. 집으로 들어가는 양쪽에는 간단한 제물을 바칠 수 있는 제단이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거리에서는 남자들은 흰옷, 여자들은 사롱에 케바야를 입고 머리에는 사원에 바칠 제물을 이고 가는 모습들을 보게 하셨다. 집마다 신을 모시는 산당들과 거리 곳곳에 공동체의 사당(family temple)이 있어 매일 삼시세끼 제단에 공양(offering)하고 절한다. 타 종교에 절대 배타적이지 않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공존한다. 발리 거주를 신청하는 서류 양식에 꼭 6대 종교 중 하나를 체크하게 되어있다.

넉넉한 재정의 부유층은 집 안뿐만 아니라 사원 내에도 개인 산당을 지어 그들이 믿는 신의 숫자만큼 탑을 쌓아 자신들의 신앙의 척도와 부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숭배하는 신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나에게 알게 하셨다.

나는 근래에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도님들에게 강조하는 말이 있다.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렇게 설교하는 나는 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들은 분명히 잘못된 신을 믿고 있다. 그런데 잘못된 신을 믿는 그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며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말하는 나의 신앙생활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내 신앙은 엉터리였고 가짜였다. 남은 일정 3일 동안 발리의 여러 곳을 다니며 좋은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숙소에 돌아와서는 밤늦도록 회개를 할 수밖에 없었다. 나의 신앙생활을...

아웃리치를 준비하며 한 기도를 주님은 전혀 다른 의미로 마음과 육신을 힐링해 주시며 나의 기도 응답해 주셨다. 주님, 감사합니다!



[글쓴이 전병태 목사]



총신대학원을 졸업하고 57세 때(2019년)목사 안수받았다.

현재 울산예광교회 부목사로 시무하며, 찬양 인도와 주일 오후 설교를 담당하고 있다.

온라인 복음전파를 위해 준비 중이며 10월 21일부터 온라인 강의 오픈 예정이다.

[정리 최경선 편집 최선]

BEE 소식

1. 2023년 “나는 빛진 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빛진 자로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BEE 가족을 축복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자혜 있는 자나
어려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빛진 자라(롬1:14).”

2. 23년 하반기 세미나! 많은 참여 및 홍보 바랍니다.

23-2 하반기 갈. 롬. 그삼. 심화					
	주일	월	화	목	토
오전		서빙고 꿈터 갈 9/11-11/06	ZOOM 갈 9/12-11/07	서빙고 202 갈 9/21-11/16	양재 리빙랜드 갈 9/16-11/18
		양재 비전홀 A 갈 9/25-11/20			부천 꿈야이홀 갈 9/16-11/18
		ZOOM 그삼 9/11-12/4	ZOOM 그삼 9/12-12/5		
		양재 리빙랜드 그삼 9/11-12/4	서빙고 202 그삼 9/12-12/5		
오후		ZOOM 갈 9/10-11/05	ZOOM 갈 9/04-10/30	B102호 갈 9/21-11/16	
		ZOOM 그삼 9/10-12/3	서빙고 302호 그삼 9/4-11/27	부천 3층 밀음홀 그삼 9/12-12/5	
		ZOOM 하브리서 9/11-11/13			
		ZOOM 십자가를지고 9/11-10/24			
* 수강료: 대면 155,000원					
* ZOOM: 155,000원 + 택배비 4,400원 / 해외 및 지방 115,000원 + 택배비 4,400원					
* 계좌: 하나은행 573-910001-43004 * 교재 배부 3권: 갈. 롬. 그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4:19)

올 추석에도 보름달 같은 은혜가
가정에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BEE오는 수요일 팀원 일동 드림

